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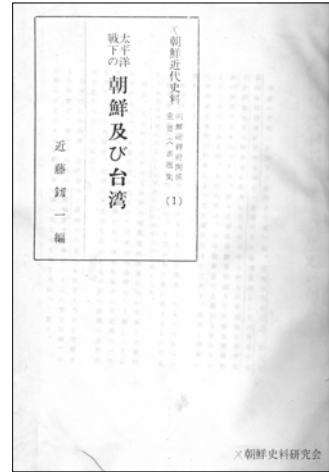
## 22 太平洋戦下の朝鮮及び台湾 태평양전쟁하의 조선 및 대만

1944년 / 近藤鉦一(곤도쇼이치) / 97면 / 01,60-12 곤 1984

이 자료는 1944년 7월 제85회 제국의회 심의자료로 급히 내무성(內務省)에서 극소수로 작성한 자료다. 공판인쇄로 된 97면짜리 자료로, 원본은 우방협회(友邦協會)가 보관하고 있다. 이 복사판은 1961년 우방협회에서 찍어낸 것이다. 내용은 국토면적에서부터 인구, 법제 등 28개 항목에 걸쳐 있는데 그 대부분이 극비사항들이라 흥미를 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42년 현재 조선(남북한)의 인구는 2,636만 1,401명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인이 75만 2,823명, 조선인은 2,552만 5,409명, 중국인 등 기타인구는 8만 3,169명이었다. 한편 같은 해 말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약 180만 명이었고, 만주(지금의 중국 동북 3성)와 북지(북부중국) 거주자도 180만 명 수준이었다. 한편 교육시설 현황은 표와 같다.

일제하의 중등학교는 167개교이며 학생 수는 8만 5,400명이었으니 희소가치를 말하면 지금의 대학 졸업생보다 높다. 1944년 현재 조선총독부 예산은 23억 5,800만 엔, 국민 1인당 소득(GNP)은 211엔으로 일본인의 558엔, 대만인의 182엔의 중간치를 점하고 있었다.



학교시설일람 (1944. 4월 말)

교육시설	학교 수(개)	학생 수(명)
초등학교	4,271	2,089,000
중등학교	75 \	41,000 \
고등여학교	76 } 167	32,500 } 85,400
사범학교	16 ' )	11,900 ' )
전문학교	20	6,000
대학예과	1	400
대학	1	670
계	4,460	2,181,470

한편 한일합병 이후 1943년 말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70억 엔이다. 이것을 1945년 8월까지 추계한다면 약 75억 엔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대상은 철도 투자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다. 21억 엔을 투자하여 7,800km의 철도를 건설했고, 다음으로 도로, 항만건설과 수력발전을 위한 댐건설사업, 대대적인 토지개량사업으로 경지면적은 두 배로 확대되었다. 이어 비료공업과 학교건설비 등이 주된 투자대상이었다.

1944년도 미곡 생산은 1,870만 섬이었다. 여기에 보리 및 기타 잡곡 1,600만 섬으로 합계가 3,470만 섬이었다. 1942년과 1943년의 한발에 따른 감산이 약 200만 섬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대하여 1944년에는 약 400만 섬의 미곡을 일본으로 이송했다. 일제하 36년 간 평균치로는 연간 600~700만 섬의 미곡이 매년 일본으로 이송되고 있었다.